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술하게 있었지만, 그 증거가 세상에 알려진 건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최초였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던 대통령은 그 다음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울림머리를 숙였다. 그날부터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기삿거리리는 차고 넘쳤고, “최순실이 이런 일도 했더니!”라며 놀라는 일이 매일 벌어졌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은 국정 농단의 공범인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에, 광장으로 나가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이

바른정당 미스터리

외침에 놀란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다. 문제는 의석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 미치지 못했기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했다. 최순실게이트에 새누리당이 책임질 부분도 많았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누리당도 탄핵안에 찬성하는 게 옳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건전한 보수로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 세력은 전혀 그럴 뜻이 없었던 것 같다. 소위 비박 세력의 도움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친박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싸고돌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태를 일삼았다. 제정신이 바친 의원들은 결국 새누리당을 나와 새로운 당을 만들는데, 그게 바른정당이다. 국정 농단 정문회에서 맹활약한 이해훈·장재원·김성태·하태경이 포진한 바른정당, 김진태와 성추의 이연영이 있는 새누리당, 구성원의 면면으로 보면 후자의 몰락은 시간문제라고 보았다.

하지만 추가 탈당이 이어지지 않는 바

람에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33석에 그친 반면 새누리당, 즉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의석수 93의 거대정당이다. 게다가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창당 초기보다 오히려 떨어졌는데, 현재 4.9%의 지지율로 정의당의 5.2%보다 낮을 정도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3.7%로 국민의당과 함께 공동 2위다. 국정 농단의 부역자들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정의의 편에 선 이들이 잘 안 되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대선 주자의 지지율을 봐도 한숨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3월 27일 발표된 여론조사서를 보면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유승민의 지지율은 2.2%에 불과한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경선에 나선 홍준표는 9.5%, 김진태는 5.0%를 기록하고 있다. 유승민은 진보에 속하는 유권자들까지 매우 합리적인 보수로 판단하는 후보인데도 말이다.

팟캐스트 파파이스에 나온 이해찬 전 총리로 유승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여러 가지 품성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좋은 보수 진영의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성과가 없어서 국민들에게 각인이 안 되었는데...” 반면 홍준표는 경남기업 성원중 회장

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고, 김진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대선에 뛰어들 인물이다. 국민에 의해 파면당한 분을 지키겠다는 분의 지지도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 현실을 아이러니 말고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정치를 욕한다. 그들의 말을 들어 보면 한국 정치가 진흙탕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자질이 외국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지는 탓이다. 과연 그들의 책임일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겠다는 세력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발을 붙일 수 있을까.

유승민의 몰락과 홍준표·김진태의 선전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에 유권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잘 보여 준다. 정치인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듯, 유권자도 자신의 지지에 책임을 지자.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서 말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목사가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게 보낸 편지



장현권 사정교회 담임목사

선장과 선원님들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가을 하늘은 눈부시도록 맑고 깨끗합니다. 저는 재만 때마다 법정에서 유가족과 함께하면서 피고인 가족과도 대화를 하는 장한권 목사입니다. 법정에서 선장님과 선원들 그리고 피고인 가족 특히 유가족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슬프고 숨이 막혀 옵니다. 2014년 4월16일 불법 피지도 못한 꽃들이 어떻게 저버렸는지 묻는 수도에 잠든 하얀 꽃들이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304명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영문도 모른 채 배에 갇혀 깊고 깊은 바다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구조의 손길조차 받지 못한 채 차디찬 바닷물에 목숨을 흘려 보냈습니다. 선장과 선원님. 낮은 임금과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선원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술어린 배에서 마지막까지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아픔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10명은(2014년10월13일 당시) 가족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팽목항에서 보타지고 있는 실종자 (당시 표현)가족들도 있습니다. 유가족 엄마 아빠들은 노

숙자처럼 광화문, 국회의사당, 청운동에서 찬이슬을 맞고 지내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광주법정에 오시는 유가족입니다.

선장님과 선원님들 가족도 얼마나 애타는 심정과 부끄러움으로 힘들겠습니까! 이제 선장님과 선원님들께서 최후 진술 때 진실함이 침몰되지 않도록 정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양심고백을 하시는 것만이 유가족뿐 아니라 선장님과 가족에게도 뜻깊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선장님입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는지, 왜 구조를 못했는지, 선장님과 선원님들 탈출했는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알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선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실과 양심이 산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장님과 선원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하나께서 선장님, 선원님들 마음을 움직여서 착한 양심으로 고백해주십시오.

단원과 생존학생 마지막 진술 때 “선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원하는 것은 왜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장님, 선원님, 제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엄마 아빠 가족들의 마음을 아시

고 양심선언 하십시오.

국민은 선장님과 선원님들을 용서하며 응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국가 권력은 끝나지만 국민의 힘은 영원합니다. 선장님과 선원님의 침묵과 자복으로 양심과 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되어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이 꽃 피어 하늘에서 눈감지 못하고 있는 생명들이 편안하게 안식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성경에 참말을 하지 않을 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욥)고 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마태복음) 말씀하십시오. 선장님, 선원님 부디 진실한 양심고백 하십시오. 양심선언입니다. 국민은 왜 배가 침몰했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 애대게 기다립니다. 유가족 엄마 아빠들을 살려 주십시오. 선장님, 선원님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법정에서 함께 하고 있는 장한권 목사 올림입니다. 미수습자 9명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그리고 선체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침몰 원인을 밝혀 진상규명 해야 한다.

社說

서서히 윤곽 드러나는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거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8일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최종 승자로 확정됐으며 자유한국당은 내일 대선주자를 뽑는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의원을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선출해 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과 PK 지역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안 전 대표는 지난 28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 완전국민경선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75%의 득표를 기록, ‘안풍’(安風)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충청 2연승을 달성했다. 문 후보가 ‘대세론’을 굳건히 이어가면서 무난하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선출될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수도권 등 선거인단 수를 기준으로

아직 4분의 3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찌 됐든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은 호남 당내 경선에서 각각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19대 대선이 양강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호남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삼는 등 전략적 투표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호남의 민심은 아직까지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을 놓고 확실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앞으로 전국 지지도의 추이를 더 살펴보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리더십과 국내의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선 후보들은 이번에만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호남을 보듬어야만 대권의 꿈도 이룰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전라도 정도(定都) 천년사업을 주목한다

광주시와 전남·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올 상반기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내년 2018년은 전라도 정도(定都) 천 년이 되는 해다. 전주와 나주를 아울러 전라도(全羅道)로 명명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인 것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천년사 편찬, 천년 랜드마크와 천년 가로수길 조성 등 7개 분야 30개 기념사업이다. 3개 시도는 특히 내년 '전라도 방문의 해'에는 한(韓)마당 페스티벌, 광역투어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 계획을 보면 천년 역사와 문화 및 새로운 미래를 상징할 랜드마크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광주), '전라도 새천년 공원'(전북), '전라도 천년 정원'(전남) 조성 등이 있다. 광주희경루, 전주전라감영, 나주목판아 등 대표적 문화유산 역시 체계적으로

복원된다. 호남권 자치단체가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과 천년 역사를 재정립하고 화합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협력사업이 전라도의 새로운 미래를 가약하는 데 바탕이 찍혀 있기에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공동보조를 이뤘을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협력사업에 그치지 않고 호남권 3개 시·도는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전라선 고속철도 추가 증편 등 공직간 공통 현안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 성공에는 시·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와 끈긴 만큼 기존 관(官) 주도의 행사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모델 제시도 기대한다.

無等鼓

소중히 간직해 온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우리의 믿음조차 볼 수 없는 날이 있다. 나 자신도 이런 어둠의 순간에 직면해 신앙을 많이 잃은 적이 있다.” 지난 1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이야기다.

당시 로마 인근 마을에서 미사를 집전한 뒤 교구 성직자들과 만난 교황은 지진으로 아내를 잃어 버린 한 남성과 만났

던 순간에 되돌아봤다. 교황은 “과연 이 남성이 (그런 재앙을 겪고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인들 중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 또는 가치관에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생기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내 자신을 지켜 냈기에 위인의 반열에 올랐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믿음의 성녀’로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 역시 생전에 존경하던 신부에게 보낸 편

지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냈던 적이 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음조조차 볼 수 없는 날이 있다. 나 자신도 이런 어둠의 순간에 직면해 신앙을 많이 잃은 적이 있다.” 지난 1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이야기다.

당시 로마 인근 마을에서 미사를 집전한 뒤 교구 성직자들과 만난 교황은 지진으로 아내를 잃어 버린 한 남성과 만났던 순간에 되돌아봤다. 교황은 “과연 이 남성이 (그런 재앙을 겪고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인들 중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 또는 가치관에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생기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내 자신을 지켜 냈기에 위인의 반열에 올랐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믿음의 성녀’로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 역시 생전에 존경하던 신부에게 보낸 편지

믿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미래에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김은희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에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미래의 주택이 가져다 줄 주거공간이 어떤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또한 미래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떤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까? 주택은 다른 일반제품과 달리 그 가격과 물리적인 크기는 물론, 보금자리이자 장기적 투자 가치다. 그렇다면 미래의 주택은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미래 주택의 가치는 편의·효율·지속가능성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겠다.

미래 주택의 편의성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허락하는 개방적인 주택 개념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첨단기술이 내 집 안에’ 있을 수 있는 미래적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비와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

안적 혁신기술이 건축기술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주택은 현재에 비해 수명을 훨씬 넘어서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투자 가치를 보존하는, 부수적 않고 바꾸는 건축구조와 디자인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민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주택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을 돌려 오늘날의 우리는 장미빛 미래를 꿈꾸기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1년 이후 광주지역 제조업, 건설업분야 성장률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촌 빈집, 폐가, 노령 인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설업 분야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국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업체들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전국 아파트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 지역 건설업 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주택산업이 성숙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신규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목할 점은 건설·건축의 수요와 공급 트렌드의 변화다. 주택 수요시장에서 베이비 붐, 예코, 실버세대 등 다양한 소비층이 형성되고 이들의 주거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 라이프스타일, 가치추구 등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공급업체들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미래의 주택

이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반영할 것인가? 미래 주택의 기술적 대안으로 두 가지의 핵심기술 연구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첫 번째는 첨단기술과의 융합이다. 중요하고 바꾸는 건축구조와 디자인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민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주택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을 돌려 오늘날의 우리는 장미빛 미래를 꿈꾸기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1년 이후 광주지역 제조업, 건설업분야 성장률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촌 빈집, 폐가, 노령 인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설업 분야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국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업체들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전국 아파트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 지역 건설업 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주택산업이 성숙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신규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두 번째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청색기술이다. 이는 미래 건축에서의 경제·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융합기술이다. 청색기술은 생태계의 원리를 이용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다른 분야의 기술과 융합된 혁신적 기술이다. 현재 녹색기술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청색기술은 녹색기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축, 의료, 로봇, 섬유,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건축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과 공법, 제품

들이 시장에 속속 소개되고 있다. 예로 청색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대형 건축물로서 흰개미집의 온도과 습도 조절 능력에서 영감을 얻은 짐바브웨의 이스트레이크 소프센터는 아프리카의 무더운 날씨에 냉난방 장치없이 일반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10%만을 사용한다. 이같이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생물체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원리는 의외로 무수히 많은데, 자연의 원리가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과 융합, 혁신적 기술·제품으로 완성돼 기존의 효율성을 뛰어넘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새로운 기술연구와 산업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주택 건설시장을 이끌어내고 미래적 주택 투자에 대한 수요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꿈일까. 청색기술과 첨단기술과의 융합과 그 사업화로 지역의 농촌 빈집, 폐가를 미래 주택으로 개량하는 선도적 사업을 벌이는 방안은 어떨까.

오늘날의 소비자는 제품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미래주택은 삶의 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마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기존 접근방법에서 탈피해 새로운 방향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첨단 기술과의 융합과 새롭게 떠오르는 청색 기술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